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항만연구단 물류항만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6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페루 Callao 항만 - DPW 남컨 개장 및 북컨 기업 관심	2
□ 하팍로이드 신규 서아프리카 노선 개시	4
□ Kuehne+Nagel 칠레 소매시장 진출 및 콜롬비아 물류센터 개장	5
□ 중국 철도 공항개발 투자계획	6

□ 페루 까야오(Callao)항, 남컨 9월 개장 예정 및 북컨 11월 입찰 예정

○ 까야오(Callao)항 개요

-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페루 수출입 화물의 약 70%를 처리하는 페루의 제1 항만



- 2007년 100만 TEU를 달성한 이래, 2009년의 경기악화에도 100만 TEU 대 유지

2005	2006	2007	2008	2009
887,035	938,119	1,022,246	1,203,315	1,089,838

○ 남컨(Muelle Sur) 부두 현황

- 까야오(Callao)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로서 2006년 7월 DP World에서 운영권 획득
- 1단계 2선석 중 1선석은 2010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 1개월 동안 2만 TEU를 처리하였으며, 2010년 7월 현재 1단계 공사 완료, 9월의 공식 개장을 준비 중
- 남컨부두는 까야오(Callao)에서 최초로 포스트-파나마스급 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부두로서 연간 85만 TEU를 처리가능

< 남컨 1단계 주요 시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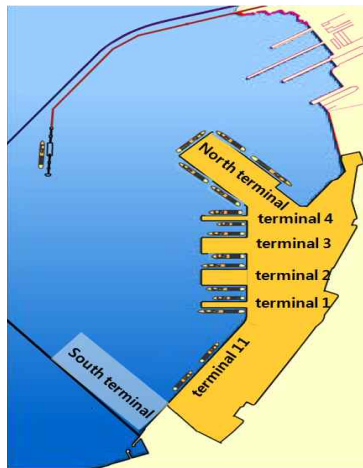
선 석 길 이	수 심	연 간 처 리 능 력	C/C	RTG
650m	16m	850,000TEU	6	18

- DP World는 2012년까지 2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연간 하역능력은 145만 TEU로 예상

○ 까야오(Callao)항 개발계획

- 페루항만청은 2009년 9월에 까야오(Callao) 항만 개발계획을 발표
- 2015년 182만 TEU, 2020년 252만 TEU, 2039년 680만 TEU를 수요로 예측하고 계획 작성

< Callao항 현황 및 개발계획 >



1) 1단계는 연두색, 2단계는 분홍색, 3단계는 붉은색, 4단계는 주황색, 5단계는 노란색

< 주요 프로젝트 사업개요 >

단계	목표연도	사업비(달러)	사업내용
1단계	2012	292,642,832	선석길이 및 수심 확장, 물류부지 개발 등
2단계	2015	471,124,820	터미널1~4 일부 폐쇄, 물류부지 개발 등
3단계	2023	823,882,160	북방파제 해지, 창고시설 개발 등
4단계	2031	1,013,112,200	신규선석 개발, 남방파제 연장 등
5단계	2039	883,875,000	신규 3개선석 개발, 창고시설 개발 등

○ 북컨(Muelle Norte) 운영자 선정 입찰

- 사업규모는 약 5억 5천만 달러, 2010년 11월 입찰 실시 예정
- 낙찰기업은 페루 국영기업인 ENAPU와 북컨 공동 운영 예정
- 현재 APMT, 필리핀계 기업인 ICTSI 및 MSC에서 관심을 표명
- 1단계 운영권자인 DP World는 페루 주무부처(Transport and Communications Ministry, MTC)의 동일항만 민간사업자 복수운영권 금지규정에 의해 입찰 참여 불가

자료 : <http://www.bnamericas.com>, <http://www.dpworldcallao.com.pe>

송주미 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

□ 하팍로이드, 지중해-서아프리카 서비스 개시

- 독일 국적선사인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7월 30일부터 지중해와 아프리카를 잇는 Mediterranean West Africa Express (MWX) 서비스 시작
 - 주요 항로는 알제시라스(Algeciras) • 라고스-아파파(Lagos-Apapa) • 코토누(Cotonou) • 테마(Tema) • 아비잔(Abidjan) • 알제시라스(Algeciras)로 주간단위 서비스 제공
- 기존 하팍로이드의 아프리카 서비스
 - South Africa Express (SAX) North Europe – South Africa
 - West Africa Express (WAX) North Europe – West Africa
 - West South African Express (WSX) Asia – South and West Africa
 - Asia – Africa – South Service (ASE) Asia – South Africa – SAEC
 - North America Africa Service (NAA) Canada – South Africa
- 하팍로이드는 스페인 남부지역의 물류중심지인 알제시라스항의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여 MWX 서비스 개시
 - 알제시라스항은 유럽과 남미를 연결하는 남북항로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아시아와 북미 동안을 연결하는 동서항로가 교차하는 전략적 해운물류 거점이며,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프리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유럽 중심항만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한진해운의 13번째 전용터미널인 알제시라스 컨테이너터미널이 '10년 7월 15일 개장하여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역할 증대 전망

<MWX 서비스 네트워크>



자료 : 하팍로이드 홈페이지 (www.hapag-lloyd.com) / Lloyd's list 2010. 7. 14

이진주 연구원 ☎ 02-2105-2982, jinjoo@kmi.re.kr

□ Kuehne+Nagel 칠레 소매시장 진출 및 콜롬비아 신규 물류센터 개장

- Kuehne Nagel¹⁾ 칠레 소매시장 Supply Chain Solution 공급
 - 스위스의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Kuehne Nagel (이하 K+N)은 2010년 5월 4일에 칠레 최대의 유통업체중의 하나인 Ripley²⁾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Global Order Management 공급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
 - 계약 내용은 유럽, 중동, 미주 지역 및 아시아 태평양의 수출입 항공 및 해상 화물 관리, 부가가치 혼재 서비스 등의 주문 관리
 - 이에 따라 K+N은 세계 30개국, 80개 항만에 걸친 200여개 벤더들과 화물 운송 조정을 실시, FCL 해상 화물 운송은 Ripley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 물류 업체와의 전속계약(Carrier Contract)을 통해, LCL과 항공 화물은 K+N과 전속계약을 통해 관리
 - K+N은 자사의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Ripley의 화주들과 연결시키고, 웹 기반의 전산 보고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가 완료되면 Ripley에서는 K+N 로그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포워더와 3PL 공급자들과 연결이 가능하여 주문과 재고를 바로 확인 가능
 - 칠레 K+N의 메니징 디렉터인 Ingo Goldhammer는 벤더들이 Ripley의 공급 요구에 협조하고, 주문 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칠레에서 Ripley가 처음이지만 그동안의 남미사업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힘
- 진출 기대효과
 - Ripley 측에서는 K+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물류 네트워크 관리가 한결 투명해지고, 자사의 목표인 "3A Logistics-Agile, Adaptable, Aligned"에 공헌할 것이라고 전망
 - K+N 측에서는 대표적인 물류 공급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남미지역에서 IT 기반의 물류관리솔루션을 확대 보급 가능
- Kuehne+Nagel 콜롬비아 신규 물류센터 개장
 - K+N은 2010년 5월 5일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 인근에 통합물류 관리 솔루션 확대를 위해 새로운 물류 Complex 개장 발표
 - K+N의 신규 시설은 내진설계를 갖춘 10,000m² 규모의 창고로 보고타에서 7km 떨어진 시베리아(Siberia)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인 메들린(Medellin)과 칼리(Cali), 대서양에

1) **K+N**은 중남미 지역 17개국에 현지 법인이 있고, 각 국가의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 본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음

2) **Ripley** 社 개요

- Ripley는 칠레에 1956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연간 매출 20억 달러로서 칠레와 페루의 소매 산업의 주요 회사 중의 하나이며, 주요 사업 분야는 의류, 약제사리, 가정생활 용품 및 전자제품 등의 소매업이며, 은행업, 보험 등의 금융업까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특히 자사 신용카드 발급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강력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 Ripley는 칠레와 페루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총 330,000m² 규모의 51개 매장과 700만 명 이상의 카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Banco Ripley는 칠레에 49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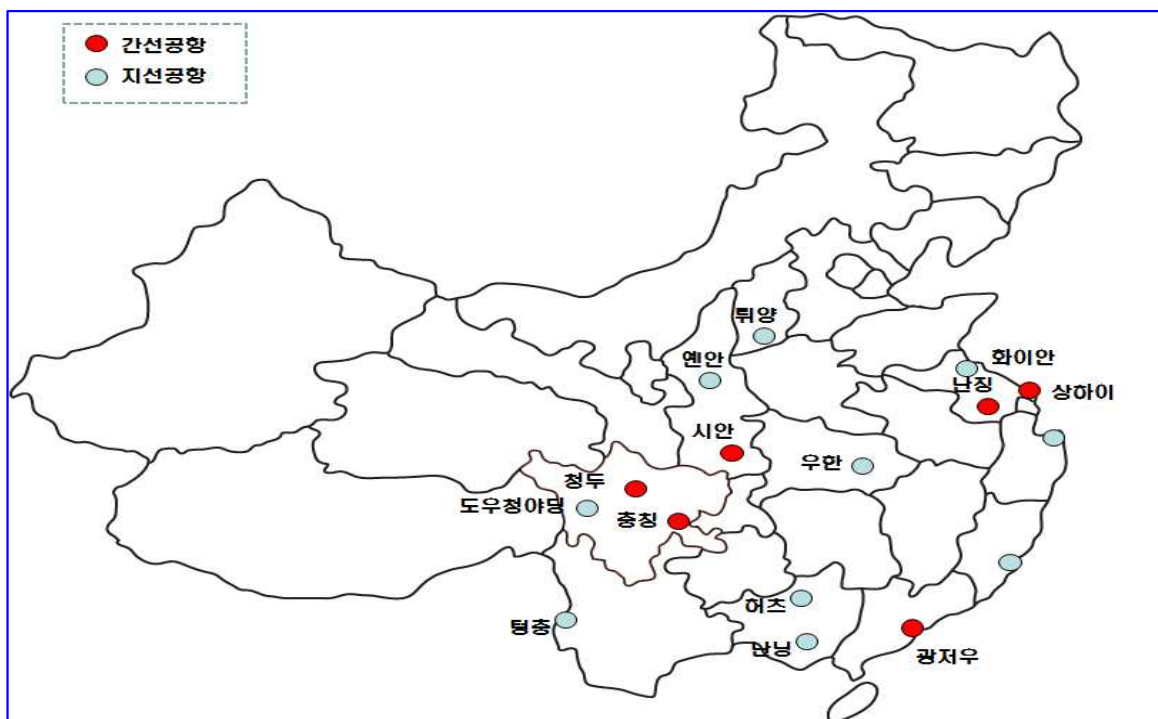
위치한 카르타지나(Cartagena)항과 태평양에 위치한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항과 고속도로로 연결됨

자료: Kuehne+Nagel, 2010.5.4. / Transport Intelligence. CI-Online. 2010.5.13

남경오 연구원(☎ 02-2105-2929, reinhard79@kmi.re.kr)

□ 중국정부 공항개발에 3,800억위안 (67조원) 투자

- 중국 정부는 “十一五”계획과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공항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
 - 2009년 새롭게 착공한 청두(成都), 시안(西安), 광저우(广州) 등 허브 및 주요 간선공항 건설과 연안(延安), 뤼량(吕梁), 화이안(淮安) 등 40여개 간선 공항 건설에 총 2,000억 위안(34조원) 투자
 - 2010년부터 2,500억 위안(42조 5천억)을 투자하여 상하이푸둥(上海浦东), 청두(成都), 우한(武汉), 난징(南京) 등 허브공항, 스촨성(四川)의 도우청야딩(稻城亚丁) 등 20여개 간선공항 건설 추진
 - 국가발전개혁 위원회는 2010년 5월, 서부대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1,000억 위안(17조원)을 투자하여 건설중인 쿤밍(昆明), 충칭(重庆), 난닝(南宁) 등 서부지역의 간선공항 사업과 광시성(广西) 허츠(河池), 윈난(云南)성 텡충(腾冲) 등 지선 공항의 확장을 위해 300억 위안(5조 4천억)을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
 -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공항인프라 투자를 통해 낙후된 공항시설 확장, 내수시장 수요 만족, 항공운수 능력 및 서비스 향상 추진



자료 : 中國大物流网

이주호 책임연구원(☎ 02-2105-2890, jooho@kmi.re.kr)